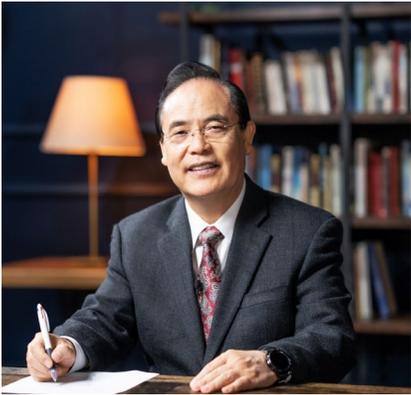


GRACE 선교소식

2024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60개국 329명 (자체 파송 79%)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9/9-9/13)
- 베트남 TD #3기 (10/22-10/2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지난 주일 오후,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을 초청하여 '사모 블레싱' 모임을 가졌습니다. 약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여전도회, 데코팀, 주방 사역팀, 교회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여 잘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고 큰 위로를 얻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요일에는 미주복음방송국에서 9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열린 다민족연합 기도대회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다민족 기도대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영적으로 살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소서!" (역대하 7:14)

11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열심히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르헨티나 브에노스아이레스의 은혜 신학교와 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와 아르헨티나 GMI Festival을 위해 출발합니다. GMI 아르헨티나 은혜 신학교는 중남미 선교를 위해 남미에 처음으로 세워진 학교로, 이 학교를 통해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졸업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GMI 교회 성도님들 약 2천명이 모여 GMI 페스티벌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연합하며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르단 JORDAN

고00 / 고00 선교사

생명교회의 아할람자매가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두달이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힘겹게 지내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할람자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리아의 난민학교인 "꿈의 학교"가 지난 8월 12일 제2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1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시리아 난민학교는 1-3 저학년 학급 2개반과 4-5 고학년 2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학년 학생 중에 21명이 수료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시리아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을 계속 이어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크고 두번째는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진로나 직업을 위해서만 아니라 복음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맹자일수록 복음의 수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학교가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팔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점점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은 부득불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 모두 불안한 사역환경이 사역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인도 INDIA

정00/전00 선교사

쇼미란과 디피카 부부는 두분이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개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신유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단인 여호와증인이 와서 교회를 공격해서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중 인도 북동부 지역에 있는 나갈랜드교회 단체에서 와서 교회개척 과목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그들이 직접와서 섭외를 했고 많은 사례비를 주고 사택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뱅갈 종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다며, 저에게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 왔



습니다. 그동안 이 부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운 환경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제목

1. 쇼미란 디피카가 섬기는 하우라 교회의 월세와 재정 아물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10월 9일에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재정과 말씀과 찬양이 뜨겁고 성도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발급과 함께 제가 '족저 급막염'이라는 발바닥 통증으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되고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해결되어서 사역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NEPAL

박00 선교사

햇띠슈레 비손교회가 2층 증축을 다 마치고 8월 19일 월요일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거리의 정글속 산속 3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다 내려와 모여 200여명 정도 모여 함께 기쁨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좁고 더운 곳에서 예배 드리다 2층 올려 넓고 시원

원하고 밝은 곳에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래울동, 데코레이션, 오늘 아침 일찍 음식 준비로 분주했던 모든 일들도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해 주는 비손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고 정전이 심하지만 전도특공대(우메스전도사, 뜨리자 사모, 룯 집사님, 서비나 자매, 럭치미 집사님 등등)는 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웃마을까지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있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손교회의 전 성도들에게 힌두권에서 통하는 C2C 전도방법을 교육시켜 전교인 전도자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근 한빛배움터 동역자 선제이 선생님에게도 젊은 이웃마을 청년들이 반발하며 시르뵐 지역 학원 수업을 못하게 중단시켜 학원 문을 닫는 일이 생겼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선제이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신앙 지켜 갈 수 있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VENEZUELA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베네수엘라 10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

7월 1일~4일, 10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11분의 팀멤버들이 오셔서 베네수엘라 팀멤버 70여명과 함께 목회자 75명을 섬기며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모두 담임목사님들로 내년 베네수엘라 신학교 6기에 입학하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사모함을 가지고 내년 1월 입학식에 뵙게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 - 아마존선교와 대학교, 빈민가전도

사랑의 불꽃 후에 미국에서 오신 단기선교팀들과 함께 4곳을 방문하며 단기선교, 전도를 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선교센터 윗동네에 올라가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1:1 전도와 집회를 했습니다. 원래 교회가 없었는데, 신학교 목사님 부부가 순종하여 이사 오셔서 3곳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국내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도착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부족 형제들 - 구리빠꾸, 야노마미, 켄꾸아나, 제랄, 뽀에로와 부족 등과 함께 예배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준비해 오신 전도와 의료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존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아마존 방문에서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전에는 저를 만나면 항상 무엇인가(물질, 옷이나 그들이 필요한 물건 등



등) 요구했던 야노마미 형제들이 이번에는 다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진심의 고백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아마존 방문 후에 단기팀들과 카라카스로 돌아와 대학생 전도와 중남미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곳인 빈민가 뼈다레에 가서 길거리에서 1:1 전도와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과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 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학교

중남미에 뿌린 내린 복음은 카톨릭, 토속 신앙 그리고 개신교의 복음이 혼합되어 있어서 순전한 복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신학교 등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이 정말 변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8월 초에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의 17명의 단기팀과 함께 아마존에 갔었는데 저는 아마존 선교센터에서 일주일간 120여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라카이 도시에서 280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두 도시에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 (콜롬비아, 아마존 선교)

작은 발걸음이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신학교 목사님들의 교회가 선교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자발적으로 매달 20달러 이상 헌금을 해서 모아서 현재 두 곳에 보냈습니다(북한 선교, 요르단). 이 시작을 통해 베네수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교사 훈련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를 사용하시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5기 대학생 훈련 사역 (Escuela Liderazgo Global. 글로벌 리더십 스쿨)

9월부터 3개월간 5기 글로벌 리더십 스쿨이 시작됩니다. 현재 78명의 대학생과 7명의 리더가 선교센터에 올라가서 훈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이기에 너무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훈련은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와 큐티를 시작으로 강의, 중보기도 저녁 집회 등 밤 10시까지 훈련하는 사역이라 엄청난 힘과 신경이 집중되는 사역입니다. 합숙훈련을 담당하는 저와 엘리아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5기를 통해 학생들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증문

과테말라 인카운터 2기

G22 / 이동훈 집사

잡언 3장 5-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번 과테말라 인카운터 선교 준비를 통해 받았고, 선교 내내 붙들고 의지한 말씀입니다. 선교지 첫날, 같이 간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올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번 과테말라 인카운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도착 첫날이 주일이라 현지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예배를 시작했을 뿐인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일예배 뒤에는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현지 분들의 생활상을 조금이나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엔 인카운터 준비하면서 그룹식구들과 교재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함께 동참하신 다른 그룹 집사님들과 친해지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일, 인카운터 첫날, 현지 인카운터 캔디데이트분들을 정말 격하게 환영해 드렸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캔디데이트분들도 따뜻한 포옹으로 화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날 저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통역을 해주신 박미경 집사님께서 너무 잘 전달해 주셔서 강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만 30분 강의를 50분이나 하는 바람에 많이 죄송했습니다. 제가 통역 시간을 계산 못해서 생긴 불찰이었습니다.

수요일, 인카운터 둘째날은 정말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캔디데이트분 중 두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셨는데 남편분은 16가지 병을 가지고 있으신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고, 아내분은 불과 2달전에 정신 병력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말 절망스럽고 힘드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평안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놀랐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저에게 심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분은 제가 하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스페인어로 해주는 기도인데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말수양회 때 많은 캔디분들이 성령 체험함을 보았습니다.

목요일 인카운터 마지막날에는 캔디들의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캔디들의 간증을 통해, 그리고 얼굴에서 보여지는 행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한분한분 다 만나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는 정말 거의 모든 캔디들과 한분한분 포옹하며 아쉬움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과테말라 인카운터 선교를 말씀으로 준비부터 모든 일정 동안 Spiritual Leader로 선교팀을 인도해 주신 최성민 목사님께 감사하고, 운영관으로 선교 일정 관리, 팀 관리, 물품 관리, 팀 건강 관리, 그리고 팀 행복까지 챙겨 주신 캐빈다나 그룹장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팀 멤버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선교 왕초보인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배와 나

<1분단상 131-9월호>

- 김대규 장로

예배와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결론적으로 하나이어야 한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대화하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이는 곧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를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나의 모든 삶의 본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아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변화하여 살게 된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몸이란 나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세 상과 구별되어 사는 내 자신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 것이다. 이리 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공중예배들도 진정으로 의와 진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는 나의 변화된 삶이기에 그렇다.

고로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삶과 예배가 분리된 세속화된 삶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예배적인 삶과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몫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함께 하며 아버지를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경외하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다. 바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예배인 것이다.

4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과 주님과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나타내신 말씀으로 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한다.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도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셨다.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나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배(프로스퀴네오: proskuneo.헬)라는 동사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께 섬김과 감사와 순종과 경외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엎드려 입맞춤으로 경배와 존경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버지와 친밀함이 생동감 있게 표출돼야 한다. 곧 아버지께 내가 드러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향해야 할 예배적인 삶이자 진정으로 드러지는 공적 예배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광을 위함이다. 성공적인 예배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회개의 삶이다 - 회복과 정결과 거룩의 시발점이기에 그렇다. 둘째 나를 비운다.- 순종을 위함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는 삶이되기 위함이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에 사로잡힌 삶이다. -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 넷째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야 한다 - 구원의 완성을 위함이다. 다섯째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 -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장차 주님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한 준비이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나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그 영광이 함께 하는 참 예배적인 삶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 한사람의 영향력 있는 예배적 삶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편안하게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에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 한사람의 삶이 참 예배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번져나갈 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예배적인 삶속에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영원히 이르도록 해야 한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모로코 장원 선교사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27일에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 이를 위해 8월 23일부터 뇌경색 약 항혈제 복용을 중단하였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뇌경색이 재발 안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시경 결과는 대장에서 2cm size의 용정을 내시경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8일)에 그동안 복용하던 뇌경색 약인 혈전제를 복용했는데 28일 하룻밤내내 대용량 피를 설사형태로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가서 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마침 강영철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주셔서 하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도제목은 피가 완전히 멎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혈을 위해 혈전제를 몇일 더 복용하면 안 되는 데 이로 인해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게 기도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때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 하며 온전한 지혈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팔 김00 / 오00 선교사

제가 머물고 있는 네팔 극서쪽 덩거리에 한국 이단들이 침투해서 병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건물을 짓고 사람을 불러 성경 가르치다가 경찰에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다행이도 이단들은 추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단들이 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라크 죠셉 김 / 선교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 11일 병원 입원해서 급성 염증으로 인해 Stent 를 박고 9월 12일 수술할 예정입니다. 9월 14일 병원 퇴원한 다음 통원치료 다니면서 9월 26일경쯤 stent 를 빼고 마지막 외래 치료는 10월 10일이라고 병원 의료진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병원수술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이00 / 정00 선교사

에하드 스쿨(북한선교통일 훈련학교) 2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하드 스쿨 3기가 9/2~10/30까지 8주간 에클레시아선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한분 한분이 훈련기간동안 전략적인 북한선교를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온라인 기도모임을 통해 남한에 온 한영훈 한영훈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북한의 막혀있는 담을 뚫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12/21~12/28 진행되는 딱동무 워크샵을 통해 남북한의 작은 통일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일본 공영환 / 공은자 선교사

1. 5명의 결신자를 허락하소서!
2. 주님의 몸된교회를 세우소서!
3. 문서전도와 찬양전도 집회를 통해 4000여명의 주민들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4. 선교사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5.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소서!
6.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소서!
7. 10키로 떨어진 곳(키노사키)에 문을 담은 예배당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8. 모리카미, 마에가와, 오타, 아마모토, 타나카, 마쓰나가씨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9. 진행하고 있는 LTM(Local Trinity Mission)사역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세우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레바논 장00 / 서00 선교사

1.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것들 속히 이루시고 종전이 되도록
2. 소그룹으로 시작한 3군데의 난민학교 학생들이 잘 성장하여 어린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생산을 위하여
3. 미국 Gateway Seminary CLD 프로그램에 지원한 11명의 시리아 난민 신학생들의 2년간의 무탈함을 위하여
4. 난민 청소년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감당하는 아내 사역자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그리스 이정식 선교사

1. 그리스 장기 비자 발급: 그리스에서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비자가 문제없이 발급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함께하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신학 학비: GMU에서 신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학비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뒤셀도르프 한인 은혜교회 연합사역: 8월 31일 인카운터와 9월 1일 페르시아교회 개척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필리핀 의료선교 및 개척선교
- 키르기스스탄 Glow of Love #21
-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 GMI Argentina festival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네팔 은혜복음 워크샵 (10/3-10/12)
S/L: 신영자 목사
문의: 최윤정 장로 (714-943-4076)
- 태국 TD 1기 (10/14-10/17)
S/L: 안영식 목사
렉터: 고양섭 장로
코디네이터: 남양호 장로
총무: 노우종 안수집사 (213-761-3590)
- 인도개척선교 (10/18-10/26)
팀모임: 9/17(매주 화요일) 7PM, WPC
문의: 전재우 안수집사 (562-644-2128)
최윤호 장로 (714-357-7149)

- 베트남TD 3기 (10/22-10/25)
S/L: 한기홍 담임목사
디렉터: 안재경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 히말리야 TD 6기 (10/22-10/25)
S/L: 전혜숙 목사
렉터: 백미영 권사
문의: 조 제이슨 집사 (213-905-0636)
-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 개척선교 (10/31-11/12)
팀리더: 홍호철 장로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 엘살바도르 AFA2기 (11/3-11/10)
S/L: 안영식 목사
렉터: 피터이 안수집사
문의: 차윤석 안수집사 (714-334-2340)

3.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4.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5.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예배

온라인 (매월 첫째주 화요일 7:30 PM)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6.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